

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Contents September 11, 2013

Biweekly Report

- 2** Markets Sag in Asia, Reflecting Concern about the Fed and Syria
김진수, from The New York Times

- 5** India's Rupee Keeps Falling and the Trade Deficit Keeps Widening
유안규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- 8** A Treasury Shortage Squeezes the Heart of the Market
오치훈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- 11** Guardian Warriors and Golden Eggs
김태민, from The Economist

- 14** Don't Blame Uncertainty for the Weak Recovery
전경령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- 16** Defenestrated
김현진, from The Economist

Special Report

- 19** Europe PMI Boost, Asia Trade Gloom
박예지, from Financial Times

Markets Sag in Asia, Reflecting Concern about the Fed and Syria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3.08.03\)](http://www.nytimes.com/2013/08/03/business/markets-sag-in-asia-reflecting-concern-about-the-fed-and-syria.html)

* 요약자: 김진수 (jinsuking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FRB**, **아시아 경제**

“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아시아 시장의 몰락”

□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아시아 경제 시장의 침체 및 하락을 야기함

- 최근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는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전략 자원인 석유의 가격이 폭등함
- 백악관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으로 원유수입의 표준 가격이 배럴당 107달러에서 112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함

□ 미연방제도준비이사회(FRB)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 경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

- FRB가 지난 1분기 인도의 자금 투입을 줄이면서 루피화의 약세가 지속됨
 - 올해 초 루피 환율은 달러당 55루피였지만 최근에는 달러당 69.77루피로 평가 절하됨
- 관련 전문가들은 치솟는 석유가격이 불안정한 아시아 상황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

- 특히 필요한 석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는 손해를 입기 쉬운 상황


□ 최근 투자자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서양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

- 여러 아시아 국가가 경제 쇠신에 느린 진척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더 나은 기회가 있는 다른 대륙으로 눈을 돌림
 - 홍콩의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아시아 시장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투자자가 이동하고 있다고 밝힘
- 투자자들의 이러한 경향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주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임

□ 주식시장은 구체적인 수치로 아시아 시장의 하락세를 증명하고 있음

- 작년에 훌륭한 성장세를 보인 필리핀의 BM 지수는 3%나 하락하였고,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는 달러당 10,930로 하락하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
 -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있으며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밝힘
- 태국에서는 주요 물가 지수가 1.4%나 하락하였고, 환율 또한 달러당 32.24바트로 크게 평가절하됨
-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홍콩의 주식시장은 주가가 모두 1.5% 이상 하락함

□ 그러나 많은 분석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최근 아시아의 경기 침체가 15년 전의 것과는 다르다고 분석함

-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음
 - 이것은 과거 97년과 98년도에 아시아를 휩쓴 경제위기와 다른 양상
-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달러의 부채보다 자국 통화의 부채를 더 많이 갖고 있음
 - 이는 자국의 통화 약세가 큰 채무변제액의 증가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뜻
- S&P의 아시아-태평양 경제 책임자 Gruenwald는 큰 적자를 안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지만, 이것이 아시아 전체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함 

India's Rupee Keeps Falling and the Trade Deficit Keeps Widening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8.29\)](#)

* 요약자: 유안규 (yag7985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평가절하, 무역적자

“끝없이 추락하는 루피화, 늘어가는 무역적자”



□ 인도는 루피화 평가절하와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

-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하였을 때는 수출업자들이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실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마련
 - 실제로 2011년 5월을 기점으로 루피화가 23%가 절하되면서, 그 다음해인 2012년 수출실적이 전년도 대비 11.6% 상승
 - 따라서 대부분 이해관계자는 통화가치 타격이 무역흑자를 통해 흡수될 것으로 예상함
- 그러나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수출량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, 인도의 수출량은 2012-13 회계연도 동안 1.8%의 하락을 기록함
-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하면서 2013년 1분기 GDP가 9%까지 하락함

□ 오히려 평가절하에 따른 원자재 수입 비용의 증가로 현지 기업의 부담만 늘어난 상태임


- 원자재 수입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현지 제조기업은 수출이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입 물가만 상승하였기 때문에 사업에 타격을 받음
- 현지 제조기업은 차라리 지금보다 통화가치가 상승하여도 안정적인고 적절한 통화가치 상태가 사업하기 더 좋다는 의견을 피력함

□ 인도는 수출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난관을 헤쳐가야 함

- 인도 수출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이 재무상태가 건전한 거래처를 확보해야 함
- 수석 경제학자이자 차기 인도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은 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거래처를 찾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서 수출주도의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
- 인도는 전통적으로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에 인색하여 당국의 제조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

-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인도의 컴퓨터, 전자기기, 장난감, 스포츠웨어 산업의 진작을 저해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

□ 그러나 정부와 민간에서 인도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도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함

- 정부가 현재 국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, 델리와 뭄바이 지역 사이에 산업금융단지를 개설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여건 상생을 위한 투자 증진방안을 고려하고 있음
- 인건비가 상승한 중국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위해 자국 외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으며, 이것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
- 다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인도는 반드시 적절한 법령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임 

A Treasury Shortage Squeezes the Heart of the Market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8.29\)](#)

* 요약자: 오치훈 (resuntry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재무성채권, 그림자금융

“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현황과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”

□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정부 예산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수조 달러의 재무성채권(Treasury bonds)이 필요한 상황

- 재무성채권은 수요와 달리 공급에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
- 이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

재무성채권

미 재무성이 발행하고 있는 재무성 증권에는 단기물부터 20년을 넘는 장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, 보통 1년 이하의 것을 재무성증권(Treasury bill; TB)이라 하고,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것을 재무성 중기채(Treasury notes), 10년 이상의 것을 재무성 채권(Treasury bond)이라 부른다. 재무성 중기채와 재무성채권은 이자지급방법에서도 재무성증권(TB)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. 즉, TB는 할인발행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해 재무성 중기채 및 재무성채권은 액면가 또는 이에 근사한 가격으로 발행되어 일정 기간마다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이자부발행방식을 택하고 있다.

출처: 매일경제.

□ 정부의 채권발행 감소와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재무성채권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분석됨

- 내년이 되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규제가 재무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됨
 - 재무성증권시장의 유동성 감소는 융자금리를 더 높이며 소비자신용감소라는 재앙이 될 수 있음
- 차용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있음

□ 미국재무부증권은 대형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

- 미국재무부증권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적으며 대량으로 사고팔기 쉬움
- 투자를 위해 단기로 1억 달러 이상을 빌리기 원하는 헤지 펀드 또는 금융기관은 가지고 있는 재무부증권을 담보로 사용함
 - 재무부증권을 팔고 합의된 가격에 되삼
- 단기금융시장, 연금펀드 그리고 여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일시적으로 재무성증권을 담보로 사용함

□ 한편 미국 규제기관은 신용 붕괴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국제결제 은행뿐만 아니라 리포대출(repo)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


- 리포대출이나 기업어음과 같은 관련된 형태의 금융은 그림자 금융으로 잘 알려졌음
 - 기존 은행이 시행하는 요구불예금 방식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이라 함
- 차입력과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은행의 이익을 감소시키며 은행이 가장 중요한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더

욱 비싸게 만들 것임

□ 리포대출과 같은 그림자 금융은 규제기관에 정말 중요해서 극단적으로 그림자 금융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 빠뜨림

- 월 스트리트는 장기성 투자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단기성 대출에 엄청나게 의존함
 - 이것은 왜 단기성 대출의 동결이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
- 2008년 신용위기 동안 리포대출이 극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대공황 이후 가장 최악이었던 경제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음
- 만약 그림자 금융을 멈추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임

□ 결론적으로, 앞으로도 재무성증권의 공급은 수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

- 재무성채권 규제기관은 대출기관이 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을 다시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
- 파생상품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규제는 거래자에게 자신의 부채금액 공개를 요구하는데 이는 물량을 더욱 감소시키는 원인이 됨
- 새로운 규제는 금융 안정성과 시장기능 악화라는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됨 

Guardian Warriors and Golden Eggs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8.24\)](#)

* 요약자: 김태민 (ktdd440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중국, 다국적 기업, 규제

“자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배타적 태도”

□ 자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중국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임

-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부패한 현지 정부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그러나, 다국적 기업이 현재 중국에서 맞닥뜨린 장벽은 과거 일본과 한국이 내세운 보호주의에 비해 결코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

□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음

- 의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영국계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(GSK)의 영국인 직원을 6주간 구금
 - 이와 함께 사노피(Sanofi)와 일라이 릴리(Eli Lilly)와 같은 다른 외국계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
- 외국계 자동차회사와 관련 합작투자 법인이 책정한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실시

□ 기업 관계자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반미 여론에 깊은 우려를 표함

- 중국 국민들은 미국 국회가 입증되지 않은 스파이 혐의로 자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(Huawei)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격분
- 올해 초 에드워드 스노든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 규모를 폭로하자 중국 국민의 반감은 극에 달함

□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및 탄압은 단순히 외국인을 배척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

- 최근 중국 관영 언론매체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동기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
-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높아진 물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고,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내포됨

□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의 치솟는 물가, 주택가격, 의료비, 식품안전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다국적 기업에 전가


- 높은 물가로 인해 고조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관련 외국 기업들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해결하려 함
- 중국의 비싼 의료비는 외국계 제약회사가 의사로 하여금 더 비싼 약을 팔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

□ 일부 관료집단과 국수주의자 사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
- 많은 소비자들에게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조악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되고 있음

- 규제 당국이 외국계 기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중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

□ **앞으로도 중국 당국의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추방되거나 철수할 일은 없을 것**

-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선진국의 자본과 세계 일류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음
- 특히 현재 중국 기업보다 외국 기업의 기술 수준이 월등하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용가치가 충분함
- 기업 입장에서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에 해당하는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임 

Don't Blame Uncertainty for the Weak Recovery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5.22\)](#)

* 요약자: 전경령 (obooko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불확실성, 경제성장

“미국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불확실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의 부당함”

□ 최근 몇 년간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위원회의 비평가들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의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

- 새로운 의료개정안, 연방의 변칙적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
- 현재 CEO들이 사업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워 고용과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성장이 위축되고 있음
 - 비관주의는 불확실성의 전파로 경제공황시기에 팽배하는 경향이 있음


□ 이는 타당해 보이나, 불확실성은 경제공황과 금융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들의 부산물임

- 2008 부동산 거품붕괴와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가진 부의 22%가 손실되었고, 이는 미국의 소비, 투자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침
- 이 같은 상황을 완화할 목적으로 수립된 각종 정책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킴

□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이며 정상적인 현상임

- 경제활동에서 정부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언제나 정확히 예측해낼 수는 없음
- 불확실성과 진보는 현대 자본주의 동전의 양면과 같기에 시장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
 - 갤럽여론조사에 따른 경기신뢰지수는 5월에 잠시 하락하였으나 현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

□ **의회는 불안정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낮추기보다 투자자와 사업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**

- 전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,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미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킴
- 시리아와의 전쟁 수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폐지와 정부채무한계의 개정을 논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을 훼손함
 - 채무한계의 위협을 명확히 인지하고 경제 성장의 빠른 회복세를 지향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으로 보임 

Defenestrated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8.31\)](#)

* 요약자: 김현진 (guswls206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마이크로소프트, 스티브 발머

“모바일 시장 강세에도 굳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”

□ **현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스티브 발머가 은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,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잇따름**

-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\$778억으로 상승시키고, 직원을 10만 명으로 늘리는 공로를 이룸
- 그러나 그가 CEO로서 더 많은 성과를 내거나 주주들에게 수익 배분을 더 잘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음

□ **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PC 시장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,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PC에서 모바일 기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**

- PC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하며, 인텔의 프로세서로 작동됨
-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Dell, HP, Lenovo 등의 브랜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함
-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애플이나 구글의 모바일 기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, PC 판매량은 두 자리 수 비율로 떨어짐

□ **인텔, HP, Lenovo는 다양한 전략을 세우며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음**

- 인텔은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차별화된 속도를 내세우며 신제품 칩을 발표함
 - 그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성적은 저조한 편
- HP는 2011년 모든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, 후임 CEO Meg Withman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진출할 것을 결정
- 중국기업 Lenovo는 비교적 시장의 흐름에 잘 대응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중국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


□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태블릿 PC 시장을 겨냥해 Windows 8을 출시함

- 리서치 회사인 Forrester은 Windows의 한때 95% 이상이었던 PC 시장 점유율이 30% 정도로 떨어졌다고 분석
- 마이크로소프트는 뒤늦게 10월 말 터치스크린과 태블릿 PC를 목표로 정하여 신판 Window 8을 출시함
- Window 8의 애플리케이션은 마우스 클릭보다 손가락 터치에 더 적합하게 디자인됨

□ Window 8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으며,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 PC인 Surface는 실패작이 되었음

- 많은 소비자들은 아직 이전 모델인 Window 7에서 8로 전환하지 않음
-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인 Surface는 9억 달러가량의 평가 인하를 불러왔으며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음

□ 그러나 모바일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

- 경쟁자들보다 모바일 시장에 늦게 진입했지만,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함
- 구글의 무료 워드 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하고 있지만,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안정된 고객층을 보유함 

Europe PMI Boost, Asia Trade Gloom

* 기사출처: [Financial Times \(2013.09.02\)](#)

* 요약자: 박예지 (shiellin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PMI**, **국제 경제현황**

“PMI로 살펴본 세계 국가들의 경제현황”

□ 기존의 경제 지표는 제조업의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제현황을 PMI를 통해 분석함

- 특히 제조업 의존율이 높은 유럽, 아시아,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PMI는 경제현황을 분석하는 데 유용
- 유럽과 아프리카의 PMI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, 아시아의 경우 무역 부문의 전망이 흐림
 - 아시아의 PMI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 수출형 제조업의 불황이 나타나고 있음

PMI (Purchasing Managers' Index)

PMI, 즉 구매관리자지수는 미국 구매관리자협회(NAPM)가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매월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지표를 의미한다. PMI 는 지불가격, 신규주문, 출하 정도, 생산, 재고, 고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신뢰도 평가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된다. PMI 는 분야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치화 하며, 이렇게 환산한 지수는 50 을 기준으로 하여 PMI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수축을,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팽창을 의미한다.

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 (매일경제, 매경닷컴)

□ **PMI에 나타난 이윤의 증가가 꼭 일자리 창출이나 무역 적자의 완화, 경기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국가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**

- 프랑스의 경우 PMI 지수는 긍정적이지만 생산과 수요는 감소했으며, 이 때문에 고용의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아시아, 특히 일본의 경우 PMI 지수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, 떨어지는 엔화의 가치가 수출을 촉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침체한 경기의 부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대조적으로 인도의 경우 제조업 분야의 악화는 4년째 지속하고 있지만, 무역의 흑자 폭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

□ **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PMI 지수는 전반적으로 호황이지만 남아메리카의 경제상황은 불안정함**

- 남부 아프리카의 제조업의 PMI 지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육 년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함
 - 증가한 수요에 힘입어 8월에 새로운 생산 주문이 2.5%, 고용률이 47.5에서 51.2로 증가함
- 브라질의 HSBC PMI 지수는 전달 대비 증가했지만, 주문과 산출량이 감소하면서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
 - 소비재의 사용과 주문은 증가했지만, 투자재와 중간재의 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는 같음
 - 제조업자는 인건비를 줄이고 있지만, 자본재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전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, 결과적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
- PMI 지수로 본 멕시코의 경기는 7월 대비 상당히 나아졌지만 상충하는 요소로 인해서 경제 성장은 아직 미비한 편
 - 국내 수요의 증가로 원재료 주문은 증가했지만, 4달째 이어지는 수출의 감소로 상쇄 효과가 일어남

- 제조업 고용률의 증가와 높은 원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5달째 새로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으로 판매 가격은 감소

□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경제상황은 물가 상승과 무역적자로 인해 지속해서 나빠지고 있음


-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역적자와 해외의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 악화가 지속하고 있음
 - 수입의 경우 11.4% 증가했지만, 석유와 가스의 수출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이 2.37% 증가함으로써 무역 적자가 8.5억에서 23억으로 증가
 - 해외와 국내 수요의 감소로 인해 2011년 4월 이후 15달 동안 PMI 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
- 인도의 경우 수출 고객의 감소와 루피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제조업 분야의 불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음
 - 주요 수출 고객이 감소하면서 경쟁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고, 11개월 동안 해외 주문 감소
 - 루피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원재료들의 수입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비용 역시 증가

□ 동아시아 3국의 경제현황은 경제회복의 중국, 현상유지의 한국,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의 일본으로 표현할 수 있음

- 중국은 해외 주문이 계속 감소했지만 내수가 증가하여 8월에 지난 3달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음
 - 47.7이었던 7월에 대비해 8월엔 PMI 지수가 50.1로 회복
 - 유럽과 미국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해외 주문은 지속해서 감소
- 한국의 경우 약간의 주문 증가와 새로운 생산으로, PMI 지수로 본 경제상황은 지난달과 대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음
 - PMI 지수는 47.2였던 7월에 대비 47.5로 약간 증가함
 - 새로운 수출 계약의 체결로 인해 재고품은 2008년 9월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

- 일본의 경우 주요 산업인 자동차의 내수와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 경제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
 - 초소형 차량의 판매는 증가했지만, 다른 차종의 판매는 6.4%나 감소하여 새로운 자동차 판매는 8월에만 1.1%나 감소

□ 유럽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조사 국가의 PMI 지수가 증가함으로써 호전되고 있는 유럽경기를 반영함

- 유로존에 포함된 대다수 국가에서 2011년 5월 이후 생산, 새로운 주문, 새로운 수출 산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이 지속해서 흑자인 상태로 유지됨
 - 재정난을 겪었던 그리스 역시 새로운 수출 주문으로 인한 생산 호조로 제조업 부문이 안정적인 상황에 다다름
- 독일과 영국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 지속적인 수요와 빠르게 증가하는 생산 주문이 경기상황을 호전시키는 원동력
 - 독일의 경우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지만, 소비재와 투자재의 수요가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PMI 지수는 51.8로 증가함
 - 영국의 경우 생산과 새로운 주문의 증가율이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7월에 54.8이었던 PMI지수가 57.2로 대폭 상승
- 프랑스는 일부 품목의 생산 감소로 인해 PMI 지수가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50 이하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이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음
 - PMI 지수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5가지 구성요소 중 4가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, 생산 분야에서의 부진이 그 모든 요소를 상쇄
 - 새로운 수출 주문도 약간 감소했으며, 고용은 지난 18개월 동안 조금씩 줄어듦 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웅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주찬 (kjcjuchan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성민화 (alsghk1014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전주영 (junjy9111@hanyang.ac.kr), 박인철 (star11kers@hanyang.ac.kr)